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통 인문학의 역할

정요일*

<차 례>

1. 문화와 문화관광
2. 문화관광 산업과 전통 인문학의 역할
3. 외국에서 행해지는 인문학과 문화관광 산업의 접목 사례
4. 결 어

<국문초록>

‘문화’란 무엇인가? <도덕이 빛나서 밝은 것>이 ‘문’(文)이며, <가르쳐지고 깨우쳐져서 착한 백성 또는 좋은 세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화’(化)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백성이 착한 백성으로 바뀌고 풍속이나 문물제도가 모두 도덕이 빛나는 밝은 모습으로 변한 상태나 그 정도>를 의미한다. ‘관광’이란 무엇인가? <그 나라의 빛남을 살펴본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명산대천(名山大川)이나 고적을 유람하고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외면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이 관광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강산의 수려함과 유적지의 아름다움을 그 의미도 잘 모르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만 외국인에게 보여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대하고서 도덕적 전통과 문물의 자취를 살펴본 후 마침내 ‘도의지국’(道義之國) 또는 ‘예의지국’(禮義之國)임을 보다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화관광’ 산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준비에 부족하다. 도로나 유적지 곳곳의 안내 간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 오기 전에 컴퓨터로 한두 번에 클릭하여 일목요연하게 화면을 살펴보고서 주

* 서강대 교수.

어진 기간 내에 가장 의미 있고 효율성 있게 여행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표준화된 문화 정보의 '역사 문화 지도'를 개발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인을 만나고서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덕과 예절의 교육에 소홀했으며, 근래의 교육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교육은 결국 문화인을 길러내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관계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웃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게도 잘 보존된 옛날의 훌륭한 국가 교육 기관 '성균관'(成均館)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논개와 춘향의 사당을 볼 때 한국의 의리 있는 여인상(女人像)을 보고서 '의열'(義烈)의 나라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필요하며, 충무공·안중근 의사(義士)의 사당을 찾아서는 '충의'(忠義)의 나라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전통적으로 익히고 실천해 온 나라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주제어 문화, 관광, 문화관광, 전통 인문학, 문화 정보, 역사 문화 지도

1. 문화와 문화관광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통 인문학의 역할을 논의하고 강조하기 전에, 먼저 '문화'(文化)란 무엇이며 '관광'(觀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관광'(文化觀光)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토대로 문화관광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환경이 특별하게 좋다거나 물적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거나 한 것도 아닌 이웃 또는 먼 나라들이 무척 잘 사는 문화국으로 인정받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 공업·기술만으로 승부를 걸 시대가 아니다.

'한류'(韓流)란, 외국에서 느끼는 '한국적 물결'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한국의 진정한 '대중문화'의 '물결'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

졌든, 최근에 ‘한류’의 형성과 그로 인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의 효과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나, ‘한류’만으로 문화 산업 전반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2004년도 한국 문화 산업의 수출액은 9억 3천 9백만 달러인 데 비하여 그 수입액은 16억 3천 4백만 달러이다.¹⁾ 그리고 2004년도 한국의 방송·영화·게임 등 대중문화의 수출액은 5억 1천 7백만 달러인 데 비하여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 대중문화의 수출액은 180억 달러로, 일본이 우리의 35~36배에 달한다.²⁾

그와 같은 통계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문화 산업’ 또는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정책적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가의 문제가 그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관광하는 데 한차례의 검색만으로도 주어진 기간 동안에 어찌하면 한국 여행을 가장 보람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도록 하는 문제도 그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 산업’에서도,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단순히 경물(景物)이나 경치(景致) 또는 문화유적·문화유산 등의 표면적인 모습만을 관광하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인(文化人)들이 사는 고장’임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기획 등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 민족과 국민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사람 됨됨이’로서의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군자(君子) 곧 ‘덕을 이룬 분’으로서의 ‘성덕지인’(成德之人) 또는 ‘성덕지사’(成德之士)나 ‘도로써 이루어지고

1)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문화 산업 통계』의 <문화 산업 수출입 규모> 자료에 의함.

2) 한국의 자료는 ‘한국 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의한 것이며, 일본의 자료는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의 자료에 의한 것임.

각주 1)과 2)의 자료는 모두, 제7차 <동송포럼>(2006. 9. 7.)에서의 朴明珍 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의 발표 「일본의 대중문화」를 참고한 것임.

덕으로써 만민 앞에 우뚝 선 분'으로서의 '도성덕립자'(道成德立者)가 될 것을 목표로 살아온 민족이며 국민이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산천(山川)과 문화유적·문화유산 등을 관광하는 외국인에게 일관되게도 보편적인 어떤 고상한 정신을 곳곳에서 또는 사람마다에게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화관광 산업'의 정책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국민의 교육 제도나 교육 내용 등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것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는 갖가지 '고급문화 상품'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부터 교육·교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를 관광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존경과 흥미의 깊은 정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문화'(文化)란 무엇인가? 우리말의 '문화'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서양의 말에서 느끼는 개념에 우리말 '문화'의 개념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문화'라는 말이 지녀 온 어휘 원래(原來)의 개념을 사용하면 될 것이며, 우리 나름의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서양에서도 우리말 '문화'라는 어휘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말들이 있어 왔다. 'culture'[Kultur]가 그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파이데이아'(Paideia)·'디씨플리나'(disciplina)·'휴마니타스'(humanitas) 등의 말들이 있어 왔다. 'culture'라는 말이, '사물'이나 '재배' '경작'이라는 의미로부터 점차 '교양'이나 '교육' 등을 의미하는 '파이데이아'(Paideia)라는 말을 생성하고, 또는 '인격 수양'이나 '자기 수련' 등을 의미하는 '디씨플리나'(disciplina)라는 말을 생성하였으며, 나아가 '인간 교육' 또는 '인문 교양' 등을 의미하는 '휴마니타스'(humanitas)라는 말을 생성하며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³⁾ 그러나 그와 같은 어휘 개념들을 수반하게 된 말이, 반드시 우

3) W. Perpeet, 『Kultur, Kulturphilosophie (문화, 문화철학)』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철학 개념사 사전) Bd. 4., Basel/Stuttgart, 1976.

리말 ‘문화’라는 말과 크게 동떨어진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원래의 ‘문화’(文化)라는 말이 지닌 어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개념을 정립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⁴⁾

‘문화’(文化)라는 말은, 자칫 ‘Kultur’ 또는 ‘culture’를 번역하는 과정에 생긴 말 곧 <야만으로부터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사회가 노력해서 얻어진 성과나 공적이 과학·예술·종교·도덕·법률·풍속·습관 등의 다방면에 나타난 것>을 뜻하는 말을 번역해서 쓰게 된 말이라고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겠으나, 중국 한대(漢代)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지무」편(「指武」篇)이나 양대(梁代) 소통(蕭統)의 『문선』(文選)에 실린 글 등에서 보이듯이, 원래 동양에서 예로부터 쓰여 온 말이며, ‘文治教化’(빛나는 도덕으로 다스려서 가르치고 깨우쳐서 변화시킨다.)라는 뜻을 지녀 온 말이다.

‘문화’의 ‘문’(文)은, <도덕이 빛나서 밝은 것> 곧 ‘밝은 덕(德)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威儀’[위의: 덕이 용모로써 나타나는 것]와 ‘文辭’[문사: 덕이 말이나 글 등의 언어로써 나타나는 것]가 모두 그것이다.⁵⁾ 그리고 ‘화’(化)는, <가르쳐지고 깨우쳐져서 착한 백성 또는 좋은

Reinhart Maurer, 「Kultur (문화),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철학 근본 개념 사전), Munchen, 1973.

Kaspar Maase, 「Kultur (문화), 『Europäische Enzyklopadie zu Philosophie und Wissenschaften』(철학과 과학에 대한 유럽 백과사전), Hamburg, 1990.

白琮鉉,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말 철학사전 1. 과학·인간·존재』, 지식산업사, 2001, 39~62면.

4) 외국의 이론을 이끌어나가 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서, 반문화적인 것 또는 문화라는 말과 역행되는 것을 종종 ‘문화’ 또는 ‘문화의 폭력’이라는 말로 논의하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 ‘문화’란 결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도덕적인 것’까지를 혼동하여 마구잡이로 사용될 말이 아니다.

5) 『論語』, 「公治長 篇, 「性天」章의 “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라는 말씀에 대한 朱子의 註에 “文·章, 德之見乎外者, 威

세상으로 변화하는 것> 곧 ‘교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⁶⁾ 그러므로 ‘문화’는, 어질게 다스리는 군자(君子)의 덕이 ‘풀’ 위에 불고 가는 ‘바람’ [風]같이 덕화(德化)를 끼치고 그 ‘풍교’(風教)가 행해져서, 백성이 착한 백성으로 바뀌고 풍속이나 문물제도가 모두 도덕이 밝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상태나 그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문화’는, 의리 도덕이 그 관찰이나 평가의 잣대가 된다고 하겠다.

조선 초기 정도전(鄭道傳)의 「도은문집서」(陶隱文集序)에

“일월성신은 天의 文(빛남)이요, 산천초목은 地의 文(빛남)이요, 시서예악(詩書禮樂)은 人의 文(빛남)이다. 그러나 하늘은 氣로써 행해지고, 땅은 形으로써 행해지며, 사람은 곧 道로써 행해진다.”⁷⁾

라고 한 것이, 바로 인류의 문화·문명이 도(道)로써 행해지고 나타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선 ‘문화’를 담당하는 부처로서의 ‘문화관 광부’가 얼마나 중요한 부처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조선 후기 홍대용(洪大容)은 「오팽문답」(吳彭問答)이라는 글에서, “학문에는 세가지 구분이 있으니, 의리지학(義理之學)과 경제지학(經濟之學)과 사장지학(詞章之學)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세가지 학문을 별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모두가 마침내 의리지학(義理之學)을 최종 목표로 하여 하나로 통섭되

儀·文辭, 皆是也.”라고 하였음.

6) 『論語』, 「學而 篇」, ‘歸厚’章의 “曾子曰, 慎終追遠, 民德, 歸厚矣.”라는 말씀에 대한 朱子의 註에, “慎終者, 喪盡其禮, 追遠者, 祭盡其禮, 民德歸厚, 謂下民化之, 其德亦歸於厚.”라고 하였음.

7) 鄭道傳, 『三峯集』, 卷之三, 「陶隱文集序」,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禮樂,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而人則以道.”

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학문을 세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세속 선비들의 비루한 소견이다. 義理를 버리게 되면 經濟[經世濟民]는 공리(功利)에 빠져들고, 詞章은 들뜬 꾸밈에 넘치게 될 것이니, 어찌 족히 학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經濟가 없으면 義理가 쓰일 곳이 없게 되고, 詞章이 없으면 義理가 나타날 곳이 없게 된다. 요컨대,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학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義理가 그 근본이 아니겠는가?”⁸⁾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의리지학’(義理之學)이 바로, 도의(道義)·도리(道理)를 추구하는 학문이며, 우리 시대의 문화관광부가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문화 창달’의 길로 통하는 학문이다. 문장을 잘 짓고 해석하는 학문도 중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꾀하는 학문도 중요하며, 살림살이를 제대로 행해지게 하는 재정·경제의 학문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 창달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잘 시키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국가의 문화 창달을 궁극 목표로 하는 것이니,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며, ‘문화 창달’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 ‘문화관광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문화’가 곧 그 나라 국가적 면모의 내실(內實)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위상은 매우 높고도 소중한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란 도덕이 빛나는 밝은 정치를 함으로써 백성 또는 국민이 가르쳐지고 깨우쳐져서 착한 백성 또는 착한 국민으로 크게 바뀐 상

8)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七, 燕記, 「吳彭問答」, “學有三等, 有義理之學, 有經濟之學, 有詞章之學.”

“余亦笑曰, 學分三等, 世儒之陋見, 舍義理, 則經濟淪於功利, 而詞章淫於浮藻, 何足以言學. 且無經濟, 則義理無所措, 無詞章, 義理無所見, 要之, 三者舍一, 不足以言學, 而義理非其本乎.”

태를 의미하며, 그것이 예의나 풍속·법제 등 문물제도의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한다. ‘문화관광부’는, 그와 같은 ‘문화’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도덕적으로 참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문화 정책 본연의 목적임을 천명하고, ‘문화관광’의 정책 또한 그런 방향으로 통섭되도록 산하기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감독·총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광’(觀光)이란 무엇인가?

『주역』(周易)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天文을 살펴보고서 시절(時節)이 변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고, 人文을 살펴보고서 天下를 감화시켜 (도덕이 밝은 좋은 세상 착한 백성으로) 이룬다.”⁹⁾

그리고 또한 『주역』(周易)에 “觀國之光.”(국가의 빛남을 살펴본다.)¹⁰⁾이라는 말이 있다. 위에서 ‘人文’을 살펴본다고 한 것은, 그 인간 세상의 도덕이 빛나는가의 여부를 살펴본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가의 빛남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빛나서 밝은가의 여부를 살펴본다는 말이다.

오늘날은 세계인들이 각국을 여행하며 관광을 많이 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그 관광여행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각국의 문물을 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고, 각국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유람하여 흥중의 뜻[胸中之志]을 넓히고 기상(氣象)을 높이는 것이다.

고려 중기 林椿의 글 「上李學士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9) 『周易』, 上經, ‘離下·艮上’, 「賁(비),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10) 上同, ‘坤下·巽上’, 「觀, “觀國之光.”

“기(氣)를 기르는 자가, 名山大川을 두루 유람하여 天下의 기이한 견문(見聞)과 장관(壯觀)을 구하지[찾지] 않으면, 또한 흥중의 ‘뜻’[志]을 스스로 넓힐 길이 없다.”¹¹⁾

그러므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관광하는 것 또한, 우리의 문물을 보아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펴보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유람하여 흥중의 뜻과 기상을 넓히고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백두산·금강산·설악산을 찾기도 하고, 불국사·석굴암 그리고 논개와 춘향의 사당을 찾기도 하며, 그에 얽힌 고사(古事)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기도 할 것이다. 또는 경복궁·창경궁을 찾기도 할 것이며, 성균관·도산서원을 찾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듣기도 할 것이며, ‘태권도’의 본 고장임을 확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런 名山大川이나 고적(古蹟)을 유람하고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외면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이 관광의 주된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기상’(氣象)을 넓힌다는 것은, 그와 같은 모든 관광여행을 통해서, 무언가 기이한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도덕적으로 참된 뜻을 터득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줄 필요가 있다.

위에서 예를 든 ‘성균관’(成均館)에 주목하더라도, 그와 같은 옛날의 훌륭한 국가 교육 기관이 우리 나라와 같이 잘 보존된 사례를 이웃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 교육 기관의 내력과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민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만하다. 그런 점을 광채 나게 홍보하여 외국인들을 감탄하게 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11) 林椿, 『西河集』, 卷四, 「上李學士書」, “養其氣者, 非周覽名山大川, 求天下之奇聞壯觀, 則亦無以自廣胸中之志矣.”

『예기』(禮記)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교화(教化)된 정도를 가히 알 만하니, 그 사람됨이 온유둔후(溫柔敦厚)한 것은 시(詩)로써 교화된 까닭이다.”¹²⁾

위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터득할 수 있겠는가?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나라의 백성 또는 국민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지고 깨우쳐졌는가를 알 만하다는 점,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사람됨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도탑고 두터운 것’[溫柔敦厚]은 그 옛날 『시경』시(『詩經』詩)와 같은 좋은 시[오늘날 같으면, 좋은 詩文의 학습을 포함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나 효제충신(孝弟忠信) 같은 도의 교육이나 예절 교육]로써 가르쳐지고 깨우쳐진 덕분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도의나 예절이 참된 것을 보여 주는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외국을 찾았을 때에도 같은 태도가 요구되는 문제라고 하겠다.

한국인들이 기업체 등의 일로 외국에 출장 나갔을 경우에, 요즘의 젊은 세대로서는 종종, 평소에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민족 문화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거나 학습한 것이 부족한 탓으로, 그저 자기 ‘이름자’[姓名]를 말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성씨(姓氏) 또는 祖上의 내력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나 고유 문화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기에 그저 묵묵부답으로 더 이상 몇 마디 진행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상대방에게 보다 신뢰감을 주는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소임으로서의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12) 『禮記』, 『經解 篇』,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고 한다. 그런 데서 우리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바로 그것이 문화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나 전통 인문학자들의 책무에 관한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를 관광할 경우, 가령 우리의 논개와 춘향의 사당을 볼 때에는 한국의 의리 있는 여인상(女人像)을 보고 '의열'(義烈)의 나라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충무공·안중근 의사(義士)의 사당을 찾아서는 '충의'(忠義)의 나라이며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전통적으로 알아서 익히고 실천해 온 나라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의 본 고장인 한국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수만 명의 외국인이 해마다 차례로 견학하고 수련함으로써 돌아가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연수(練修)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소리와 같은 우리 고유의 예술 문화를 보고 듣는 데서 전통문화의 독특하고도 고상한 정신을 터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문화관광의 모든 분야 그리고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유산이 광채 나는 문화유산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화 정보를 돋보이도록 꾸며서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전통문화를 탐구하는 인문학자들은, 그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적 뒷받침과 사업의 방향 제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화 상품에서는 독자적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상품을 기획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 상품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등¹³⁾의 전략적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 산업의 국가 경쟁력

13) 식민지 시대를 체험한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나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적 태도로써 생산하는 문화 상품들이, 그것을 향유하는 외국인들에게 종종 낯설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태도만을 고집하는 것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을 높일 수 있는 지침이요 시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을 만나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격이 향상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격 향상을 위해 배우고 노력하여 실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절 바르고 친절함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도의지국'(道義之國) 또는 '예의지국'(禮義之國)임을 보여 주는 길이다. 문화관광부는, 그와 같은 국민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담당 부처에 그것을 강조하고 역설하여, 우리의 교육 정책이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한층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의 음식을 먹으면 영양 섭취도 잘 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음식문화'를 가꾸어 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제대로 복원되고 상설화된 우리의 전통의례(傳統儀禮)를 보면 저절로 눈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격이 향상되도록 '전통의례 문화'를 보존하며 광채 나게 빛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고급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보여 주며, 고급 문화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문화관광 산업과 전통 인문학의 역할

문화관광 산업은, 민족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문화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와 고전 기록을 검토·고증하고 재해석하며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그 성과를 문화관광 산업의 각 분야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통 인문학의 연구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21세기에 걸맞는 ‘문화관광의 정보 자원’이 새롭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추진 동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해에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 마스터플랜에는, 전주대학교가 위치한 전주시 서부지구를 ‘역사문화-전통문화콘텐츠 체험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2025년까지 지속될 그 사업에는, 전통문화 체험관 및 전통문화 테마파크의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지방자치체·대학이 연계된 그와 같은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은, 국민 대다수의 여가 활용과 정신적 여유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화관광이 민족적 고유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지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자성과 혁신이 요구된다. ‘전통 인문학’의 성과가 그와 같은 자성과 혁신의 잣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문학’은, 인류의 문화·문명의 원리와 내력 및 그 생산의 이치와 정신적 향유 세계의 이치를 탐색하고 추구하여, 과거의 득실(得失)을 밝히며 미래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이다.

전통 인문학은, 그와 같은 인문학의 역할을 전통문화에 대하여 수행하면서도 특히 ‘사람다움’(humanity)에 관한 반성과 탐색에 주력해 온 학술이었다. 이는, 서구 ‘르네상스의 인문학’과 같은 지향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전통 인문학은 곧, 탁월한 인간성의 형성과 심성(心性)의 도야

14) 나일수, 『르네상스 인문학과 인문교육』, “르네상스 시기에서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을 학습하는 학문적 활동을 가리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암흑과 무지’의 시대로 파악되는 중세적 삶과 교육과는 구별되는, 이른바 ‘문화와 교양’을 추구하는 삶과 교육적 이상을 드러내는 용어였다.” “르네상스 인문학, 곧,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는 말 그대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공부’를 뜻한다. 함양시켜야 할

(陶冶)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서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문학은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고상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지도해 왔다. 21세기의 문화는 흔히 도시 유목민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창조력’이 요구되며, 다시 그 창의성과 창조력의 기반으로, 기초 예술과 함께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민족 문화가 지닌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민족 문화를 타 민족의 문화와 소통시키기 위하여, 전통 인문학으로서의 ‘깊이 있는 응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제 문화관광의 정책을 내실화하고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통 인문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문화관광의 정보 자원’을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 해야만,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추진 동력이 기획되고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나라 문화관광부의 <국가 경쟁력 제고 전통문화 특별 자문위원회>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 자원의 신(新) 기획과 전통 인문학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현 문화관광 산업에 필수적으로 전통 인문학의 성과가 접목되어야 함을 천명하고자, 작은 정성을 모아 <21세기 전통 인문학과 문화관광 산업의 만남>이라는 심포지엄(2006. 11. 17.)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화관광 산업과 전통 인문학을 접목하는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의 하나로, ‘문화관광 정보의 표준화’와 이를 통한 ‘문화지도’ 작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기에 이르

대상으로서의 인간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장차 획득해야 할 후천적 가능성이었다.”

金榮漢,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즘』, 탐구당, 1989, 86~95면.

朴奉穆 외,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현대적 의의』,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16~38면. 등 참조.

렀다.

전통 인문학이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에 연계되는 점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 전통 인문학의 휴머니즘을 문화관광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적 문화관광 산업에서 실질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경우, 전통 인문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의 사회에는 인간 내면의 조화로운 완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가치 체계의 붕괴 이후에 새로이 삶의 건전한 가치 체계가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사물을 외면적·기계적·물질적으로 추구하려는 물질 위주의 ‘속물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국가의 문화관광 정책이, 바야흐로 이와 같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여 바람직한 문화 현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문화관광 정책은 단기적 비전과 ‘보여 주기’식의 기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종종 없지 않았다.

현대 사회의 교육은, 사회의 보편적 이상과 대비되는 개인의 독자적인 필요성과 동기를 계발하고 신장시키려는 것이므로, 흔히 정형화된 인간상을 획일적으로 소개한다는 이유로써 ‘고전’(古典)을 배격해야 한다는 논리가 없지 않다. 사실상 전통 인문학에는 간혹 현대 생활과 맞지 않는 낙후된 사상이나 관념이 들어 있다는 점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편적 문화를 제시하는 ‘고전’(古典)이 개인의 독자적인 삶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전(古典)은 오히려, 현대의 개개인이 각기 다른 개성과 기질을 계발하고 표현하는 데 직접

적·간접적으로 모형을 제시하여, 인간성의 함양을 촉구함에 많은 도움을 준다. 유가적 전통에서 말해 온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유가를 초월하여 불교나 도교에서의 인간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개념들과 서로 소통해 왔다.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공부한다는 ‘위기지학’의 이상은, 전형적인 ‘배움’의 세계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여가와 향유의 세계에서든 통하는 말이였다. 여기서 공자(孔子)의 말씀 ‘유어예’(游於藝)라는 말을 환기하면 좋을 듯하다.¹⁵⁾ 이 말씀에서, 궁극적으로는 여가 활동이 심미적 활동으로서의 인간의 자아 실현을 자유롭게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논어』(論語), 선진(先進)편에서는, 제자 ‘자로’(子路)·‘증석’(曾皙)·‘염유’(冉有)·‘공서화’(公西華) 네 분이 ‘공자’(孔子)를 모시고서 자신들의 포부를 대답하게 되었을 때, ‘증석’이 “저는, 저문 봄에 봄옷이 다 되거든, 관례(冠禮)를 행한 자 5·6인과 동자(童子) 6·7인과 더불어, 기수(沂水)에서 떡감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쐬고, 노래를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의 ‘증석’의 정신적 경계는, 천리(天理)의 유행(流行)을 따르고자 하는 ‘무욕지의’(無欲之意)의 ‘참뜻’을 보인 것으로, 그러기에 후대에 정자(程子)로부터 <‘聖人之志’(성인지지)와 다를 것 없는 堯·舜(요·순) 임금의 氣象(기상)>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고, 또한 朱子(주자)로부터 결코 ‘남과 짝할 수 없는 빼어난 기상’ 곧 <‘不侔(불모)의 기상[氣象不侔]>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¹⁶⁾ 이는, 유가의 경계에 들어맞는 것이면서도 한편 도가의 경계와도 통한다. 그리고 그 정신적 경계는, 공자(孔

15) 『論語』「述而 篇, ‘志道’章,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 <(君자의 삶은,) 道에 뜻을 두고, 德에 의거하며, 仁을 의지하며, 藝에서 헤엄치듯 노니는 것>이라는 뜻의 말씀이다.

16) 『論語』, 「先進 篇의 ‘言志’章 및 그에 대한 程子和 朱子の 註 참조.

子)가 최고의 경지로 언급한 ‘예에서 헤엄치듯 노닐’(游於藝)이라든가 <마음의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행하되 법도를 뛰어넘지 않는 경지>(從心所欲不踰矩)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다. 물질 세계의 이해 관계를 떠난 정신적 여유가, 그와 같은 정신적 경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생태 환경의 파괴와 같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 인문학에서는 일상 세계의 단편적이고도 부분적인 생활 환경을 초월하여, 열려진 우주와 마주보려고 한 경험을 환기하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워 터득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이 노동의 굴레에 속박당하거나 물질 중심의 속물적 관념에 사로잡힘으로써 마음에 평온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여,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관광 정책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대개 노동과 현실적 유용성 자체에는 집착하면서도 ‘문화’·‘교양’ 등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의 하나이다.¹⁷⁾

노동과 현실적 유용성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자유자재한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국민이나 세계인들의 여가와 향유의 세계를 확대하고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는 문화관광부로서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덕성과 교양을 표방하던 전통 인문학의 목소리를 문화관광의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국민 대다수와 세계인들이 영혼의 안식을 찾고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매우 실용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 산업에서의 국가적인 실질적

17) 金南斗, 「인문학의 성격과 한국 인문학의 과제」, 이성원 외 편저,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9~19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더라도, 고유 문화의 전통과 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을 새로이 기획하고, 민족 문화의 깊이와 넓이를 최대한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는 ‘문화에 기반한 경제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문화가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통하여 인간의 삶과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자국의 문화에 바탕을 두는 문화관광 산업의 상품은, 높은 부가가치 실현의 능률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경쟁력 있는 다양하고도 풍부한 문화적 자산이 존재한다. 우리의 문화적 자산은, 그것을 창의적 기획력과 전통 인문학의 성과를 결합하여 산업화할 때, 그 잠재력이 무한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형적 문화 산업’의 모델을 극복하여,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이 육성된다면, 향후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의 진정한 ‘글로벌화’는, 민족 문화의 재해석을 토대로 할 때에 가능할 것이며, 그럴 경우 전통 인문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아시아와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 ‘한류’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이 ‘공격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면, 진정한 글로벌화를 성취하기 어렵다. ‘한류’의 효자 상품으로 저명하다는 ‘드라마’가, 실제로는 아시아와 중동에서 한국의 가족 및 가부장제에 대한 왜곡된 상(像)을 심어 주어,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류’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며,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효과를 확대하여 ‘韓브랜드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은, 전통 인문학의 긍정적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에 한층 더 보편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통 인문학’은 옛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문화·문명의 원리와 내력 및 그 생산의 이치와 정신적 향유 세계의 이치를 탐색하고 추구하여, 과거의 득실(得失)을 밝히며 미래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는 ‘인문학’으로서의 역할을 그 동안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전통 인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또는 연구자들은, 장차 국가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통 인문학의 실증적 연구 성과로 얻어질 수 있는 고전적 자료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문화콘텐츠 사업에 적절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한 내실 있는 정제된 표현의 표준화된 문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 제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역사 문화 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제반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가 이끄는 <국가 경쟁력 제고 전통문화 특별 자문위원회>는, 이제 <21세기의 전통 인문학과 문화관광 산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통 인문학의 관점에서 문화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전통 인문학의 성과를 문화관광 산업에 접목시킬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3. 외국에서 행해지는 인문학과 문화관광 산업의 접목 사례

최근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인문학과 문화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1세기 COE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사카 시립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大阪市立大學大学院文學研究科)가『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인문과학적 연구』(都市文化創造のための人文科學的研究)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3월 18일에 열린 국제심포지엄「도시문화 이론의 구축을 지

향하여」에서는, 과거 오랜 기간 아시아의 여러 도시가 지리 환경이나 사람의 이동 및 교역 그리고 정치 권력의 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각 지역의 특유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원적인 문화를 이룩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한 전통적인 도시문화의 계승과 활용에 주목하였다. 현대의 글로벌화에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이 서구에 기원하는 근대화와의 대결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인 터에, 과거의 문화를 계승하여 온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이 그 문화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글로벌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새로운 도시문화를 어떻게 창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불행히도 아직, 도시 개발에 급급한 나머지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문화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2000년 봄에, 일본의 '동경대학'은 인문사회계 대학원에 '문화 자원학'(Cultural Resources Studies) 전공을 새로 설치하였다. 대학원에만 설치된 학과로서, 학부에는 해당 전공이 없는데, 문화 경영학·형태 자료학·문자 자료학의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문자 자료학의 과정은 다시 '문서학'과 '문헌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화 자원학'은, 문화가 '말'과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실마리로 삼아, 문화의 '근원'에 대해 재검토해 보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전공 분야이다. 그 전공 분야는 곧,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그 '근원'이라는 말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거·현재·미래'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자료관·사료관·문서관·극장·음악홀·문화 정책·문화행정·문화재보호 행정' 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연구도 그 전공 분야에 포괄되고 있다.¹⁸⁾

18) 일본 동경대학 인문사회계 대학원 '문화 자원학(Cultural Resources Studies)' 전공

그리고 일본에서는 ‘문화자원학회’가 2002년에 창립되었다.¹⁹⁾ 그 학회는, 과거에 지녀왔으며 또 현재에도 지니고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을 창출하여 미래에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문화자원은,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알기 위한 단서가 되는 귀중한 자료의 총체로서의 ‘문화자료체’(文化資料體)이다. ‘문화자료체’는, 박물관이나 자료 창고에 수용될 수 없는, 건물이나 도시의 경관 혹은 전통적인 예능이나 제례와 같은 유형·무형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 학회에서는, 2002년부터 학회지 『문화자원학』(文化資源學)을 매년 1회씩 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절강대학’에 ‘인문여유연구중심’(人文旅游研究中心)이 설립되어, 2005년부터 『인문여유』(人文旅游)라는 학술지를 간행하고, 매년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 연구 센터는, ‘절강대학’ 내의 ‘인문여유’(人文旅游) 및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학과와 학술 자원을 종합하여, 인문여유와 문화산업 학술 이론의 연구를 주도하고, 절강성 여행 산업과 지역 문화 특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데서 ‘여행 산업’과 ‘인문학’을 연계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 외에도, 중국의 정부는 근래에 크게 세 가지로 전통문화 재건의 전략을 세우고서 문화 사업을 추진·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략적 사업의 시행이 1995년으로부터 ‘장쩌민’의 정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국가 사업에 전통 인문학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 참조

19) 「文化資源學會設立趣意書」(2002年 6月 12日 채택).

그런데 그 문화 사업 전략의 첫째는, 전통문화를 통해 민족 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차원의 전략이다. 둘째는, 전통문화의 재건을 위한 문화유산의 정리와 그 보호 정책의 전략이다. 셋째는, 전통문화의 재건을 위해 국민의 도덕을 함양하기 위한 국민 교육 이데올로기로서의 전통 사상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²⁰⁾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오래 전부터 문화의 보호·창조·전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일찍이 17세기에 설립된 ‘아카데미 프랑세즈’(프랑스 한림원)가, ‘표준이 될 만한 문학적 취향을 유지시키고 문학 용어를 확립하는 것’ 곧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이 활약해 왔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근래에도, ‘드골’(De Gaulle) 정부의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가 1959년에 흡어져 있던 모든 문화 정책 기구들을 집대성한 거대 기구로서의 ‘문화부’를 창설하고 이어서 문화유산 보존과 재평가에 관한 법령 제정과 함께 그 재정적 보조를 뒷받침하는 장기 정책을 확립한 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문화 정책을 펴면서 프랑스를 문화 강국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사업에 전통 인문학자들이 적극 관여해 오고 있다.²¹⁾

우리 나라에서는, ‘한류’가 우리 문화 산업의 성공 사례로 운위되면서도, 그 국면과 현황 그리고 전망과 과제에 대한 입체적 접근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²²⁾ 이는, 문화 산업에 대한 인문학적인 심도 있는 성찰이

20) 李旭淵, 「지구화 시대 중국의 문화 담론과 문화 발전 전략」, 『中國現代文學』 제37호, 2006, 274~277면.

21) 高鳳晚, 「국가는 문화를 위해 존재한다.」,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까지』(高鳳晚·李圭植 外), 한길사, 2001, 157~188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한다. ‘인문학’에서는 장차, 문화 산업에 대한 한층 즉각적이고도 깊이 있는 성찰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 인문학’에서는, 민족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행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 결 어

문화관광부는, ‘인문학’ 특히 ‘전통 인문학’의 성과를 문화관광 산업의 정책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기획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족 문화의 창달에 관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 인문학의 성과를 수용하는 문화관광 산업은, 국내외의 문화 수요자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다 바람직한 양태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문화의 자원을 다양한 콘텐츠로 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제고 전통문화 특별 자문위원회>는, 최근에 활발하게 사업 추진 중인 문화 콘텐츠 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그 개선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문화관광부가 향후에 문화관광 정보의 표준화와 한국형 문화지도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가 경쟁력 제고 전통문화 특별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문·사·철(文史哲) 등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 인력으로서, 전통 인문학과 문화관광 산업의 접목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의 일단을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여, 세부

22) 金壽伊 편, 『한류와 21세기 문화비전』, 청동거울, 2006, 13~336.

전공 또는 분과 학문의 한계를 초월하는 연구를 촉발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전통문화 특별 자문위원회>가 개최하는 심포지엄(2006. 11. 17.)에서의 연구 발표에 의해, 특히 ‘문화관광 정보의 표준화와 문화지도의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 연구 결과가 향후 우리 나라 문화관광 산업의 방향 설정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이와 같은 전통 인문학자들의 문화관광 산업 관련 연구 결과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참고함으로써 문화관광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 『周易』·『禮記』·『論語』, 藝文印書館, 1981.
 林椿, 『西河集』, 한국문집총간 1.
 鄭道傳, 『三峯集』, 국사편찬위원회, 1971.
 洪大容, 『湛軒書』, 景仁文化社, 1969.
- 高鳳晚, 「국가는 문화를 위해 존재한다.」,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까지』(高鳳晚·李圭植 外), 한길사, 2001, 157~188면.
 金南斗, 「인문학의 성격과 한국 인문학의 과제」, 이성원 외 편저,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9~19면.
 金壽伊 편, 『한류와 21세기 문화비전』, 청동거울, 2006, 13~336면.
 金榮漢,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즘』, 탐구당, 1989, 86~95면.
 문화관광부, <문화 산업 수출입 규모>, 『2005. 문화 산업 통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朴奉穆 외,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현대적 의의』,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16~38면.

白琮鉉,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말 철학사전 1. 과학·인간·존재』, 지식산업사, 2001, 39~62면.

李旭淵, 「지구화 시대 중국의 문화 담론과 문화 발전 전략」, 『中國現代文學』 제37호, 2006, 274~277면.

W. Perpeet, 「Kultur, Kulturphilosophie」(문화, 문화철학),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철학 개념사 사전) 1976.

Reinhart Maurer, 「Kultur」(문화),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철학 근본 개념 사전), Munchen, 1973.

Kaspar Maase, 「Kultur」(문화), 『Europäische Enzyklopadie zu Philosophie und Wissenschaften』(철학과 과학에 대한 유럽 백과사전), Hamburg, 1990.

ABSTRACT

The role of traditional huma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tourism industry

Chung, Yo-Il

What is the 'Munwha'(culture)? The 'Mun' is that the morality(fresh or chaste) is shiny and bright, and the 'Wha' is to be changed into good people or a better world being taught and realized.

Therefore, 'Munwha'(culture) means the condition or degree on which people are changing into good people and customs, civilizations and institutions are changing into bright picture of shiny morality.

What is the 'KwanKwang'(tourism)? This means looking into the brilliant achievement of the country. So it is just not the purpose for the tourism to sightsee the noted mountains and large rivers or historical remains, and to look around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exteriorly.

Now we have to promote the cultural tourism industry to the direction in which foreigners can think of Korea as the country of morality or courtesy when they meet koreans and they look around the moral traditions or traces of korean civilization. Also, we have to develop cultural products according to this point of view.

We have been short of such preparations. we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signboards for the roads or remains and do not have enough explanations which can lead people's interests. And we do not develop the standardized map of history and culture. This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plan tours effectively within limited time looking the internet sites obviously and clicking them before foreigners invite Korea. And we neglected the education of morality and manners which can give a deep impression to others. Also recent education system did not support these educations. The people who are related with these parts should work in

close cooperation keeping it in mind that education, finally, is to train cultural people.

Key Words culture, tourism, cultural tourism, traditional humanities, cultural information, the map of history and culture

논문투고일 : 2007. 3. 30

심사완료일 : 2007. 4. 20

게재확정일 : 2007. 5. 4